

'3퇴'와 평안

제 354기 2019년 3월 18일

2019년 3월 14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2,813만 명

뉴욕 파룬궁 수련생 대행진, 화인 4백여 명 '3퇴'

[명혜망] 눈 내린 뒤 개인 날인 2019년 3월 2일 정오에 파룬궁 수련생 약 천 명이 뉴욕의 세 번째 화인 지역인 브루클린 8번가에서 성대한 행진을 펼쳐 사람들에게 파룬궁(파룬따파)의 진상과 축복을 전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위풍당당한 행진 대오는 일제히 울리는 음악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현지인의 환영을 받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잇달아 '3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해 평안을 보전했다. 행진 당일 총 441명이 '3퇴'를 선택한 가운데 당, 단, 대 탈퇴자는 38명, 단, 대 탈퇴자는 152명, 소선대 탈퇴자는 251명이었다.

푸저우에서 십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동옌신(董燕新)이 말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파룬궁이 좋지 않다고 착각했는데, 지금 파룬궁 대오를 보고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집안 삼대가 모두 기독교도여서 신을 믿지만, 공산당이 오히려 신을 배척한다. 나는 어렸을 때 붉은 넥타이를 맨다”며 아주 시원스럽게 소선대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탈당센터 주석 이룽(易蓉)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늘 행진은 사람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가 철저히 실패했음



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생명이 선을 향하는 이 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룽은 중국인 동포 3억 명이 중공의 당, 단, 대에서 이미 탈퇴한 것을 축하하고, 중국인 동포들의 조속한 ‘3퇴’와 새해의 만사형통을 축원했다.

퇴직한 검찰청장이 진상을 알고 통쾌하게 탈당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15년 동안 대대서기를 지낸 촌 간부, “공산당은 너무나 암담하다.”

[산동 투고] 나는 남편 직장의 문 앞에서 온갖 풍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노인을 만났다. 내가 파룬궁 이야기를 꺼내자 그가 말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사람 열에 여섯 이상이 (파룬)따파를 배웠을 거예요.”

노인은 청산유수처럼 말했다. “내가 15년 동안 대대서기로 지내서 이 사회를 끊어놓아 봐요. 한 마디로 공산당은 너무나 암담해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나빠졌어요?! 내가 당신보다 잘 아는데, 향진에서 현급까지 부패로 잃은 것이 적어도 30억이에요. 여기 시장도 어떤 짓들을 했나요?! 성(省) 안의 고관 친척을 이용해서!”

내가 말했다. “맞아요. 반부패를 하면 당이 망하고, 반부패를 안하면 나라가 망하죠! 중공은 위에서 아래까지 부패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가 말했다. “장쩌민이 제일 나빠요. 보다시피 지금 잡혀가는 건 모두 장쩌민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다. “탈당은 하셨나요? 장쩌민 스스로는 이번 파룬궁 박해 운동을 벌릴 힘이 없어서 공산

당을 이용했는데, 공산당 안에는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해요. 당신이 (공산당) 안에 있는 건 일종의 치욕이에요! 성이 뭐예요?” 그가 말했다. “리 씨예요.” 내가 말했다. “제가 리핑이라는 이름으로 탈당시켜 드릴게요. 앞으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 한 부를 주며 말했다.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 쪐싼런 하오(真善忍好!)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로한 촌서기가 진상 자료를 들고 기뻐하며 떠났다.

퇴직한 검찰청장이 진상을 알고 통쾌하게 탈당하다

[헤이룽장 투고] 2018년 5월의 봄 경치가 아름다운 어느 날, 나는 공원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비범한 노인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 고검의 검찰관과 검찰청장을 지냈는데, 지금은 80여 세라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내가 말했다. “어르신은 청렴한 관리였죠? 당시에는 현재의 관리들이 모두 탐오 부패한 것과 달랐죠.” 그가 말했다. “그래요. 당시에는 무슨 탐오할 것이 없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파룬궁에 미치자 그가 말했다. “외국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게 하는 걸 봤는데, 보호까지 하잖아요. 사실 파룬궁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말했다. “파룬궁은 사람들을 진선인에 따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불가의 고덕대법이에요. 현재는 이미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각국 정부의 지지와 표창을 받았어요. 오직 중공만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고,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돈을 벌어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에 이미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3퇴’를 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그는 맑은 눈에 인자한 얼굴로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통쾌하게 탈당에 동의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파룬궁 사부님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맹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둉타이왕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미국 아칸소주 하원,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비난 결의안 통과

[명혜망] 2019년 2월 18일, 미국 아칸소주 하원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1022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아칸소주 하원의원 다니엘 설리번이 2월 12일, 제12차 회기에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이렇게 표명했다

광범위하고 믿을 수 있는 보고서가 밝혔듯이 중공이 주로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종교인 및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양심수를 대규모로 살해해 이식용 장기를 얻고 있음을 감안하여,

‘프리덤 하우스’가 2017년 발표한 〈중국 영혼 쟁탈전〉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를 강제 적출당해 장기 이식수술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음”을 감안하여,

2016년 6월 발표된 새로운 조사보고서는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기자 에단 구트만이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매년 중국의 이식 수량을 6만에서 10만 건으로 추산했다. 이것이 ‘국가 정책과 자금 통제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규모의 이식 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군인과 국민 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공의 간이식 등록 시스템에서 25퍼센트를 넘는 환자가 긴급 이식수술을 받았고,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내에 적합한 장기를 찾았으며, 긴급하지 않은 간이식의 대기 시간이 통상 몇 주 내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유엔 반 고문 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 보고원이 파룬궁 수련생의 강제 장기적출 피해 고발에 관심을 표명했고, 중공을 향해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책임추궁과 투명성 제고, 권력 남용자 처벌을 호소한 것을 감안하여,

…

아칸소주 의회 대표는 이렇게 선언했다.

“중공에 호소한다. 파룬궁 수련생, 기타 종교인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수감자와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장기적출을 즉시 중지하라. 또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시



아칸소주 하원 결의안 발의인 다니엘 설리번(가운데)과 파룬궁 수련생들

중지하고,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 중공의 장기이식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지지하며,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인체 조직 및 장기의 불법 적출 가담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동의하며, 이미 발견된 입국자에 대해 기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탈당한 행정과장의 중병이 사라지다

[명혜망] ‘3퇴’하여 행운을 만나고 ‘3퇴’하여 복은 받은 사례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탈당한 행정과장의 중병이 사라지다

[허베이 투고] 왕린(王林, 가명)은 30여 세로, 허베이성 모 기업의 행정과장이다. 그는 짚고 유망하며 의기가 양양하다.

왕린은 가슴 앞에 커다란 마오쩌둥 휘장을 달고 다녔다. 그를 아는 파룬궁 제자가 그것을 보고 알려주었다. “〈공산당 선언〉의 첫마디는 바로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령은 곧 마귀인데, 공산당이 숭배하는 것이 사실 마귀예요.” 수련생은 그에게 마오쩌둥 휘장을 떼고,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 평안을 보전하라고 말했다. 왕린은 자신이 이렇게 짚은 데다, 당원 휘장을 달아 승진하고 돈을 벌고 싶어 탈퇴를 하지 않았다.

얼마 후 공장에서 신체검사를 하니 왕린의 흉부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마오쩌둥 휘장을 달았던 부위였다. 그는 너무나 무서워 병원 세 곳을 돌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모두 같았고, 병세도 아주 심각했다.

왕린은 그때 파룬궁 제자가 한 말을 생각해냈다. 그는 파룬궁 제자를 찾아가 주동적으로 탈당을 부탁하고, 마오쩌둥 휘장도 떼어버렸다. 파룬궁 제자는 그에게 사람의 도

덕을 파괴하는 공산당의 최종 목적은 인류를 훼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파룬따파 하오, 쪐싼런 하오” 아홉 글자를 정성껏 외우라고 말했다.

며칠 후, 왕린은 또다시 파룬궁 제자를 찾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영험해요! 제 병이 나았어요! 제가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현재 왕린은 파룬궁의 저서 〈전법륜〉을 공손히 읽고 있다.

대형 교통사고 속에서 평온무사한 남편

[대륙 투고] 나는 한 파룬궁 수련생을 아는데, 우리는 자매처럼 함께 지내며, 나는 그녀를 언니로 부른다. 언니는 사람이 좋아 선량하고 공정하게 일하며, 나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나는 특히 그녀에게서 파룬궁 이야기와 사람의 도리를 듣는 것이 좋다. 나와 남편은 모두 중공 사당 조직을 탈퇴(‘3퇴’)했다. 언니는 우리에게 “파룬따파 하오, 쪐싼런 하오”를 정성껏 외우면 평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와 남편은 트럭 기사다. 어느 날 남편이 차를 몰고 랴오닝 판진(盤錦)시에 갔는데, 안개가 심해 40~50미터 밖에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 남편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도로가 모두 얼어 있어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것도 아주 위험했



다. 차를 급히 세우자마자 그의 귀에 “쾅.” “쾅.”하는 소리가 잇달아 여러 번 들렸다. 그가 차에서 내려 보니 앞쪽에 차량 몇 대가 연쇄 추돌했고, 뒤쪽에서도 차량 몇 대가 멈추지 못하고 충돌해 엉켜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다만 이런 사고가 흔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때 남편은 큰 행운이라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유독 자신만 중간에 쉽게 차를 세웠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는데, 온몸이 떨렸다. 정말 사후에 느끼는 무서움이었다! 우리는 남편이 찍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즉시 파룬궁 사부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그에게 그런 행운이 없었을 것이다. 남편의 목숨을 구해 주신 파룬궁에 감사드립니다!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